

광운소식

KWANGWOON NEWSLETTER · AUTUMN 2025



(좌측부터)
문지영 학부모, 윤옥기 여사, 박신희 학부모

Section 1. 광운WIN 광운

- 04 **KW Message**
제13대 광운대학교 총장 윤도영
- 06 **KW Story**
늘 광운인 곁에서, 우리도 광운가족
- 10 **KW Choice**
2025학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 12 **KW Focus**
로봇(RO:Bit) 네트워크 포럼
- 14 **KW Festival**
광운 축제 ‘AINES : 조각’

Section 2. 광운WIN 광운人

- 16 **KW Pro(fessor)**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박아름 교수
크리스토퍼 한 특임교수
- 20 **KW Star**
CJ 올리브영 김환 CTO
InssTek 최한설 전문연구요원
영국 플리머스대학교 나주리 연구원
- 26 **KW Network**
스포츠 전문 취재단 아르마스

Section 3. 광운WIN 광운IN

- 30 **KW News**
한 눈으로 보는 상반기 광운이슈
주요 단신 & 연구 수상 및 성과
- 40 **KW Fund**
발전기금 참여안내 & 약정명단



광운인(人)이 광운안(IN)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성과는
100년 광운 승리(WIN)의 밑거름이 됩니다.



COVER STORY

화학과 故 이상우 명예교수의 장학금을 이어가는 윤육기 여사, 아들이 소속된 광운대 아이스하키팀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한 문지영, 박신희 학부모께서 이번 125호 표지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관련기사 p.6)

K-VISION 2034

창학 100주년 향해 도약하는 광운대학교



학교법인 광운학원 설립자
화도 조광운 박사 (1899~1980)
Founder Pictogram and Introduction

1934년 5월 화도 조광운 박사는 일제 치하의 암흑으로부터 민족을 구하는 길은 청년 학도들에게 과학기술과 학문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이곳에 광운대학의 모체인 조선무선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설립자는 개인은 일상을 통해 '근면성실'하고 '검소절약'하며 '탐구 실천'하는 생활덕목을 갖추어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학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왕성한 지적 탐구활동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진리(참)'와 '자유(빛)'를 추구하는 교양지식인의 '이상', 즉 인격체로서의 자주성, 자립성,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In May 1934, Dr. Kwangwoon Cho established the Chosun Wireless Radio School - the parent of Kwangwoon University—with a belief that the only way to save the nation from the darkness of Japanese colonial rule is to educate young students with science and technology and academics. The Founder believed that it is most important for an individual to manage himself by arranging daily life with 'diligence and sincerity', 'frugality and saving', and 'inquiry and practice'. Furthermore, through the intellectual exploration activities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at the university, the Founder sought for independence, self-reliance, and unity as a personality; that is, 'the ideal' the intellectuals pursuing 'truth' and 'freedom' that are rooted in the culture and history of Korea.



사랑하는 광운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 새로운 마음으로 2025학년도 2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학생들의 발걸음이 다시 채워지고, 강의실과 연구실에 활기가 넘치는 이 계절,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대학은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도 교수님들의 연구 열정, 직원 선생님들의 헌신, 학생들의 도전 정신이 모여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광운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창학 100주년을 향해 도약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K-VISION 2034>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광운이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광운은 첨단 연구와 미래 교육을 선도하여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며,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다전공·융합 교육 체계 구축, 캠퍼스 국제화, 에듀테크의 현대화, 그리고 AI, 반도체, 로봇, 국방, 환경 등 국가 전략 분야의 연구 가속화를 통해 세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 국제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광운의 이름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설립자이신 조광운 박사께서 강조하신 “과학기술의 대상은 결국 인간이며, 진정한 교육은 인간다운 품격과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창학정신에서 출발합니다. 첨단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중심에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교육과 연구의 가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있습니다.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교양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대학은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운 가족 여러분,

새 학기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아직 자신의 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배움과 도전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끈기와 근면함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광운대학교는 그 여정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며 동행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학기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도전과 성취가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운대학교 총장 윤도영

그 사람의 뜻을, 제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습니다

화학과 故 이상우 명예교수의 장학금을 이어가는
윤옥기 여사 이야기



“돌려줘야 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룬 걸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 남편은 아니었어요. ‘나는 받은 걸 돌려줘야 한다’는 게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윤옥기 여사는 남편 이상우 교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수로 일한 것도 본인의 능력보다 ‘받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단다.

이상우 교수는 2015년부터 세상을 떠난 2022년까지 8년간 총 2,650만 원을 기부했다. 그것도 ‘발전기금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전해지는 장학금으로 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였다.

“엄격했지만, 진심은 학생에게 있었죠”

윤 여사는 남편을 떠올릴 때면 웃음 섞인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커닝한 학생에겐 직접 매를 들고, 수업 빠진 학생에겐 성적을 안 줬어요. 저는 그게 늘 걱정이었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병문안 와서 ‘교수님께 종아리 맞은 학생이에요’ 하고 웃더라고요.” 그의 교육은 지식보다 태도를 먼저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연구실 장비, 환경 하나에도 누구보다 신경 쓰던 그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 편을 들고 있었다.

“교수는 학생을 길러내는 사람입니다”

“대학교는 교수가 주인이다. 교수들이 학생을 길러야 한다.” 평소 이 교수가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한 윤 여사의 답변이다. “처음엔 권한에 대한 말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나니 그게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라며 윤 여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도 화학과 졸업생들이 진학도 잘하고 취업도 잘된다고 들

었어요. 살아 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스승의 날이면 제 자들이 찾아와주기도 했었거든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윤 여사는 장학금 기부를 결코 혼자서 못 보지 않는다.

“남편 장례식 때 화학과 교수님들, 학교 관계자분들이 보여주신 마음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학금도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인 일이라 생각해요.”

물가가 오르며 기부액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었지만, 윤 여사는 내년부터 장학금 전액이 학생들 손에 직접 닿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남편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다.

“그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윤옥기 여사는 남편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그 길은 한 사람의 철학이 이어지는 길이고, 누군가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주는 길이다. 故 이상우 명예교수가 남긴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승의 책임과 사랑이 담긴 유산이다. 그리고 그 뜻을 지키는 윤 여사의 걸음 또한 광운의 또 다른 교육이다.

※ 故 이상우 명예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050만 원의 화학과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2022년부터는 배우자 윤옥기 여사가 그 뜻을 이어 매년 400만 원씩 3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광운대학교 화학과의
한 교수는 해마다 조용히 장학금을 기부했다.
학생을 누구보다 아꼈던 스승, 故 이상우 명예교수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은 그 뜻을, 배우자이자 삶의 동반자였던
윤옥기 여사가 올해로 3년째 이어가고 있다.



함께 뛰고, 함께 응원하다

광운대 아이스하키팀 발전기금을 기부한
두 학부모의 이야기



아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 그 자체가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김현승 선수의 어머니 박신희 학부모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팀 21학번, 공격수 김현승 선수의 학부모입니다. 벌써 아들이 졸업하고 이렇게 소식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김현승 선수의 아이스하키 시작은 초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다. 스케이트를 처음 타보고 매력을 느낀 아들은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꿨지만, 해외출장이 많은 맞벌이 가정의 현실로 인해 클럽팀 활동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진로를 깊이 고민하던 아들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결국 부모도 결심을 바꿨다. “솔직히 중학교 3학년이면 엘리트 선수로선 늦은 출발이었어요. 제가 미안했는데, 아들은 늦게 시작했기에 더 간절히 몰입했다고 말해주었죠. 그 말에 울컥했어요.”

광운대 하키팀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교내에 자체 아이스링크장을 갖추고 있는 강점뿐 아니라, 뛰어난 지도진과 팀워크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좋은 하드웨어에 더해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갖춘 팀이에요. 지도자, 선수, 분위기까지. 우리 아들이 이 팀의 일원이었던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전기금 기부에 동참하게 된 계기도 ‘감사’였다. “광운대에서 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기에 졸업하면서 그 보답으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여면 선수들에게는 큰 울타리가 될 거라 믿어요.”

학부모들 사이의 연대감도 특별하다. 운동선수 자녀를 둔 공감대와 따뜻한 분위기가 자연스레 서로를 응원하는 문화로 이어졌다고 한다. “하키팀이 단순히 성적만이 아닌, 선수 개개인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기부가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이어졌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김현승 선수와 후배들에게 전한 말도 따뜻했다. “사랑하는 아들, 늦은 시작이었지만 뜨겁게 달려온 시간은 엄마에게 큰 감동이었어. 광운대 하키팀 선수 여러분,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즐겁게 운동하길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팀은 6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명문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영광 뒤에는 선수들과 지도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든든한 후원자, 바로 ‘학부모’들이 있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선수들은 반드시 보답할 거라 믿습니다

이우용 선수 어머니 문지영 학부모



광운대 스포츠융합과학과 3학년, 아이스하키 선수 이우용 군의 어머니 문지영 씨. 아들의 아이스하키 인연은 어린이집 친구의 권유로 간 체험학습에서 시작되었다.

“7살 겨울, 수원 탑동아이스링크에 체험을 간 뒤로 15년이 지났네요. 어느새 대학선수가 되었고, 저 역시 학부모로서 함께 성장한 셈이에요.”

문 씨는 광운대 하키팀이 보여주는 ‘팀워크’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아이스하키는 팀 스포츠잖아요. 개인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엔 감독님과 선수들의 신뢰,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도 방식이나 분위기도 특별하다고 강조한다. “감독님은 인성과 생활지도, 진로 상담까지 다 해주시는 홍반장 같은 분이예요. 늘 솔선수범하시고, 선수들 개개인을 배려해 주시니 자연스레 신뢰가 쌓여요.”

이러한 신뢰는 학부모들의 기부로도 이어졌다.

“저희 학교는 정말 좋은 환경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기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해외 전지훈련, 리그, 트라이아웃까지... 학부모로서 저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광운대 하키팀의 미래를 향한 기대도 크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우리 선수들, 졸업 후엔 사회에 꼭 좋은 영향력으로 보답할 거라 믿어요. 이번 기부가 그 성장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흐름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팀 전체를 향한 응원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올해 국제대회와 리그가 곧 시작되는데요,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건강하게, 좋은 성과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광운대 화이팅!”

※ 박신희 학부모님과 문지영 학부모님은 광운대 아이스하키팀을 위해 각각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기부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학생체육지원팀(아이스하키팀)으로 전달되어 우수한 재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뜻깊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혁신교육의 탑티어 광운대학교 무한교육엔진을 켜다!

학생 중심 교육혁신과
미래 융합인재 양성 성과 입증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S 획득

TOP.1

광운대학교(총장 윤도영)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미래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국가 재정지원사업으로, 현재 전국 13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성과평가는 △교육혁신 추진성과 계획을 평가하는 ‘교육혁신 성과’ △성과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자체 성과관리’ 두 영역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광운대는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교육수요자 맞춤형 전공 선택권 강화 △다전공 이수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혁신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학생 지원 및 관리체계 고도화 △교양교육과 기초학문 통합형 모듈 구성을 통한 융합인재양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제도 및 시스템 동반 혁신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도영 총장은 “2년 연속 S등급 달성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광운대는 앞으로도 유연한 학사구조와 학생 선택권 강화를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학,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중심의
AI 시스템반도체 특화 교육 본격화

2025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TOP.2

광운대학교가 글로벌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심 대학으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광운대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반도체 설계 분야 특성화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본 사업을 통해 광운대는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중심의 반도체 주전공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등 2개 연계전공, 집적회로설계 및 반도체시스템설계 등 2개의 전공트랙과정을 신설·운영하며 칩 설계부터 제작, 검증까지 반도체 설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5개 참여기업과의 다양한 기업협업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된다.

2025년 상반기 광운대학교의 성과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대학이 추구해온 혁신과 책임의 결실이자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 사회적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한 이번 성과를 통해 광운대학교는 앞으로도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사회가 신뢰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대입전형 공정성·고교교육
연계·사회적 책무 실현 등 성과 인정 받아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3년 연속 선정

TOP.3

광운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유형 I)’에 13년(2013~2025년) 연속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대입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책무성을 제고하여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평가역량(공정성 확보, 전문성 제고) △고교연계성(고교교육 지원 활동, 고교교육 반영 전형운영) △사회적 책무성(사교육 부담 완화, 사회통합 및 균형발전 지원)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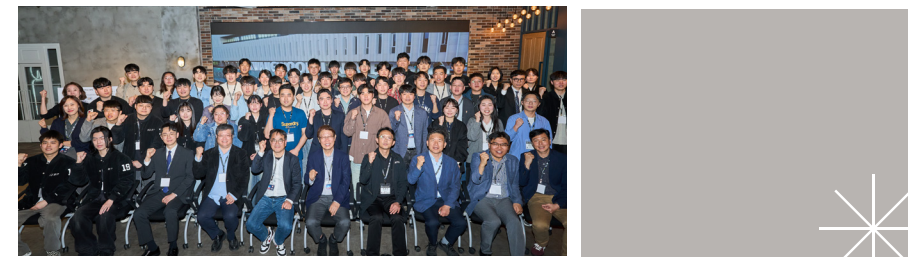
그동안 광운대학교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운영 내실화 및 평가신뢰도 제고, 입학사정관과 입학 부서 관계자 교육·훈련체계 내실화, 대입전형 개선 관련 연구 진행,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고교 및 시·도 교육청 협의체 구축 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광운대학교는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빗 (RO:BIT) 네트워크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로봇산업계 동문과 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 로빗 창단 2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운대학교가 향후 학생 연구개발(R&D)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로봇 분야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강한 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자리에 모인 로빗(RO:BIT) 출신 광운 인재



AI, 그 다음을 준비한다 — 로빗(RO:BIT) 네트워크 포럼



\\ 행사 사회를 맡은 로봇학부 박수한 교수(로빗 8기)



\\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정석재 기획처장



\\ 축사를 하고 있는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광운대 석좌교수)



\\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주)럭스로보 오상훈 대표(로빗 5기)

로빗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자리에

광운대학교 로빗(RO:BIT)은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로봇스포츠 게임단으로 출범한 이래 약 400개의 국내외 대회 수상을 통해 광운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롭게 조성될 로빗(RO:BIT) 연구공간은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상상력과 기술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의적 거점이 될 예정이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광운대 석좌교수)은 “로봇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며 “로빗(RO:BIT)이 광운대를 대표하는 이름인 만큼,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로봇게임단 로빗(RO:BIT) 5기인 (주)럭스로보 오상훈 대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로빗(RO:BIT)이 배출한 인재들이 국내 로봇 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대학생 시절 로봇 연구에 바쳤던 열정처럼 지금의 학생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로봇 분야의 미래를 선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O:BIT 네트워크 포럼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정석재 기획처장은 “이번 RO:BIT 네트워크 포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광운대학교는 로빗(RO:BIT)을 중심으로 학생 중심의 연구혁신 모델을 구축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로봇산업 리더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운대학교는 이번 포럼을 출발점으로 향후 △학생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고도화 △로봇융합기술 분야 특성화 강화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젝트 확대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로봇 공학을 융합하는 ‘초연결형 미래 연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각이 모여 하나 된 순간, 광운대 축제

다채로운 참여형 부스, 협력으로 완성하다

축제의 낮 시간대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참여형 부스가 열려 학생들의 발길을 끌었다. 국어국문학과, 산업심리학과, 법학부, KIF, 베트남 유학생회, KWBC 등 총 15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특히 여러 학과가 연합해 함께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협력의 장’이 되었다. 김세연(소프트웨어학부·24) 학생은 “여러 단과대학이 함께하다 보니 인원이 많았지만, 서로 힘을 모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무대 위 열정, 하나 되는 관객석

오후 5시 이후 노천극장에서는 학생 공연과 초청 무대가 열려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K-ME, 비마음원단, 피버스, 페가수스, 14프렛, 트릭, C-spot 등 여러 동아리가 사흘 동안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다. 락밴드 동아리 페가수스의 엄준서(건축공학과·24) 학생은 “마지막 곡 ‘붉은노을’을 연주하며 관객석의 불빛을 보던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 공연뿐 아니라 유명 아티스트들도 무대를 빛냈다. 카더가든, tripleS, 기리보이, 최예나, YdBB, N.Flying, ZICO, 10CM가 연이어 출연하며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날 열린 연춘가요제에서는 다섯 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숨은 실력을 뽐냈고, 객석은 하나 된 응원으로 가득 찼다.

추억을 남기는 굿즈, 학생의 아이디어로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굿즈샵도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관 203호에서 열린 굿즈샵에는 900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준비된 상품은 전량 매진됐다. 굿즈팀장 이제호(컴퓨터공학과·23) 학생은 “굿즈야말로 축제의 정체성과 기억을 남기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굿 곳에서 굿즈를 착용한 학생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안전과 배려,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만든 성과

축제를 이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안전’과 ‘배려’를 올해 축제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조석현(동문산업학과·22) 총비대위원장은 “지난 경험을 토대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인파가 몰릴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소윤 총동연 비대위원장 역시 “집행부원 모두가 친절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학생들과 소통했다”고 전했다.

함께 만든 퍼즐, 광운 공동체의 축제

사흘간의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학생들의 열정과 협력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AINES : 조각’이라는 퍼즐을 완성했으며, 그 안에서 광운대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빛났다.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광운대학교에서 사흘간의 축제 ‘AINES : 조각’이 열렸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네이밍 공모전에서 선정된 ‘AINES’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부제로 붙은 ‘조각’은 단합과 협력을 통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과, 동아리, 단과대를 넘어 서로 힘을 모으며 ‘광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AI와 빅데이터가 경영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이제 경영학은 이론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력과 기술을 다루는 윤리의식까지 요구되는 시대다. 경희대에서 MI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AI·빅데이터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온 박아름 교수. 이제 광운대학교 빅데이터경영전공에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기술과 사람, 교육과 연구의 균형을 고민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박아름 교수를 만나보았다.

데이터도 알고, 사람 마음도 아는 멋진 인재로 성장하길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신입 박아름 교수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데이터 통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광운대
경영학부 빅데이터
경영전공입니다.

상담문의 penelope007@gmail.com /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홈페이지 www.biz.kw.ac.kr

Q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A 정말 AI 혁명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예요. ChatGPT같은 AI가 등장해서 일상생활부터 산업현장까지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AI가 내 일을 대체하면 어찌지?”하고 걱정하지만, 저는 AI를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로 바라봅니다.

반복적인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감성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AI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바로 비판적 사고와 윤리의식이라고 생각해요. AI가 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질문하고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Q AI 시대에 경영학 교육도 바뀌어야 할까요?

A 아주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경영학 교육이 이론 중심·정성적 분석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시각화 툴 활용 등 실증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AI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므로, 학생들이 AI의 작동원리와 한계점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AI라는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AI와 협업하여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혁신 기회를 식별하고, 결과를 해

석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통합적 시각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나 알고리즘 공정성과 같은 윤리 이슈도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 인재로 양성해야 합니다.

Q 교수님이 생각하는 인재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A 제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경영학적 통찰과 데이터 과학 역량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인재입니다. 즉, ‘데이터도 알고, 사람 마음도 아는 멋진 인재’로 학생들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도 제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재능과 열정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도전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배우도록 따뜻하게 지도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라고 믿어요. 이를 위해 수업 시간에는 현실 세계 사례를 가져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졸업할 때쯤이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든 데이터와 협업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따뜻한 리더십도 갖추게 되면 좋겠습니다.

Q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제가 학생들에게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예요. 데이터도 알아야 하고 AI도 이해해야 하고 거기에 경영 전략까지... 처음엔 벅차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 주춤하지 말고 “재미있는데? 한번 더 알아봐요” 이런 태도가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업 능력, 소통 능력도 꼭 필요해요. 요즘 세상 문제는 혼자 풀 수 없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해야 하니까요. 저는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팀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학과 내 멘토링 시스템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윤리의식이예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라면 늘 “이게 모두에게 좋은 방향일까?”를 스스로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학생 참여 기회도 있나요?

A 현재 여러 AI 융합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반 옥창예방침대의 비즈니스 모델 시뮬레이션, 수면 질 분석 연구 등이 있고, 무용 공연 플랫폼의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라이브커머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 플랫폼의 성공 요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은 한국보다 250배 크거든요.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중국 유학생이나 학부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광운대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만의 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A 우리 전공은 경영학과 최신 ICT 기술의 융합교육을 선도하는 훌륭한 선택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경영전공 기업과의 MOU체결을 통해, 실무중심의 교육과 기업탐방, 특강, 기업 ambassador 등 실무형 프로젝트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저희 교수진 역시 연구와 교육에서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영지식을 균형 있게 습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AI가 직업 지형을 바꾸고,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 광운대학교에 삶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교양과목 ‘Design Your Life’가 문을 연다. 그 주인공은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이끌어 온 크리스토퍼 한 교수. “삶에도 설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의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본다.

삶에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크리스토퍼 한,
신설 교양과목 ‘Design Your Life’ 이야기

삶에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 미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Q ‘Design Your Life’, 어떤 강의인가요?

A 2025년 2학기부터 광운대학교에 새롭게 개설되는 교양 수업입니다. 이를 그대로 ‘당신의 삶을 디자인하라’는 뜻이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 해보는 실습 중심의 강의입니다. 단순한 동기부여나 성공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Q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지금의 대학생들은 AI 시대라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 “나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죠. AI가 콘텐츠 제작, 프로그래밍, 회계, 법률 등 전문 영역까지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여전히 수십 년 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이 바로 지금,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삶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Design Your Life’입니다.

Q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A 의사결정 과학, 행동경제학, 인지심리학, 디자인 사고, 시스템 분석 등의 이론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한 학기 동안 진로, 시간관리, 소비 습관, 인간관계, 감정관리 등 삶의 다양한 주제를 팀 프로젝트로 풀어갑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Fast and Cheap Failure(빠르고 저렴한 실패)’라는 원칙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창의성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스

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강의 안에서는 실패가 ‘리스크’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Q ‘삶을 설계하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AI 시대일수록 인간 고유의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창의성, 감정 지능, 문제 해결력, 그리고 문제를 발굴하는 능력 등이죠. 그런데 그 기반은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모르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수업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서 출발해 삶의 방향을 세우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교수님의 이력도 ‘다시 설계’의 연속이었습니까.

A 저는 미국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처음엔 외교관을 꿈꾸며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외교 대신 실리콘밸리를 선택했죠. 스탠포드 공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디자인 씽킹’이 태동하던 시기에 D스쿨의 초기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2013년 SAP 한국 지사의 혁신 전략을 총괄했고, 2015년에는 SAP AppHaus Korea를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KAIST 경영대학 MBA 과정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시작해 10년간 디자인 사고와 인간 중심 혁신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번 광운대 부임은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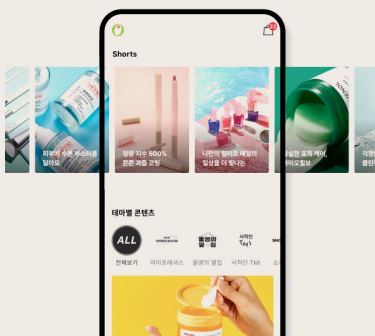
A 이번 강의는 1학년 대상, 20명 정원으로 영어 혼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주어진 삶의 주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팀별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피드백을 나눕니다. 저는 교육을 ‘실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곳이죠. 특별히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의가 학생들이 인생의 첫 설계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경영학부(05)

CJ올리브영 CTO 김환 동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CJ올리브영 테크플랫폼센터에서 CTO를 맡고 있는 김환입니다. 광운대학교 소식을 통해 후배들과 동문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무척 뜻깊습니다. 저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플랫폼과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이끌며,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CTO로서 기술 전략 수립,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총괄하며, 기술 개발·운영·인프라까지 전 영역에서 사업 목표와 기술 역량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술로 고객 경험을 바꾸고, 세상을 연결하다



저에게 기술 혁신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 경험을 더 편리하고 매끄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옴니채널 연계, 운영 효율화는 지금 제가 집중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도 그것이 고객과 조직에 가치를 주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은 조직 문화와 함께 변화할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단순히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애자일 프레임워크의 일부를 도입해 팀 간 우선순위를 정렬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덕분에 변화가 조직 안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저항’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의 출발점은 광운대학교 경영학부였습니다.

원래는 MIS(경영정보학)를 전공하고자 했지만, 당시 IT 업계는 힘든 환경으로 유명했기에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비즈니스

와 기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정보 수업만으로는 갈증을 채우기 어려웠고, 결국 컴퓨터소프트웨어학을 복수 전공하며 스스로 길을 넓혀 갔습니다.

당시는 Web 2.0과 아이폰 혁신이 전 세계를 뒤흔들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민감하게 따라가며 학문적 공부를 넘어서 무엇을 시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외활동과 창업을 경험했고, 단순한 개발 이상의 의미를 체득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로 해결책을 만드는 전 과정을 몸소 배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Why be normal?”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저를 지탱해 온 태도는 남들이 짜놓은 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자세였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넘어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배우며 스스로의 트랙을 만들어 왔습니다. 누군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단순히 순위 경쟁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트랙을 개척하면 누구보다 앞서 달릴 수 있다”라고 했던 말처럼, 이 철학은 지금도 저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IT, 유통, 디지털 비즈니스는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기회도 무궁무진합니다.

올리브영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변화를 즐기며,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술 역량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함께 문제를 풀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혁신은 새로운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레거시 시스템과 기존의 방식도 함께 바뀌나가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에는 친구들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스타트업에 창업하고 체감한 속도감과 도전 정신, 대기업의 체계와 안정성을 모두 경험하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남들의 길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길은 다 달라도,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커머스 플랫폼(Unified Commerce Platform)’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온·오프라인 글로벌 고객 경험을 완전히 통합하여 올리브영이 단순한 리테일을 넘어 테크 기업의 한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과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기술과 사람을 함께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변화가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조직 전체가 도전과 혁신을 즐기는 문화로 발전한다면 그것이 제게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최한설 동문(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14)

소프트웨어에서 기술경영 그리고 창업을 향한 여정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기술경영을 공부한 최한설입니다. 현재 InssTek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기술과 경영 관련 업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박사과정을 준비하며 연구와 창업을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엔 아직 갈 길이 먼 제게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운대의 배움, KAIST의 탐구, 그리고 끝없는 도전



초등학교 시절부터 컴퓨터 분야 진로를 꿈꿨습니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컴퓨터 관련 학과를 살펴보고, 광운대학교의 공학·IT 내실과 제가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고려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교과목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와 대회/대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스마트 번호표 서비스, 광운대 도서관 서비스, 매 학기 1천 명 이상이 이용한 강의평가 Helper 서비스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문제 해결력과 기획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총학생회장을 맡는 것을 고민했지만, 단과대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과 간 교류 부족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체복 구매 및 학술제, 연합 행사 등의 학생 참여를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공식 앱 개발과 강의 매매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전에는 과목 공지사항이나 휴강 정보를 학생들이 즉시 확인할 수 없었고, 인기 강의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문제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학생복지처, 교무처, 정보통신처와 협력하여 수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학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광운대학교가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광운대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KAIST로 진학하였습니다.

광운대 재학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는 공학적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정책 및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에 더 큰 흥미와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기술경영’이라는 분야에 큰 관심과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으로만 기획했던 정책이나 서비스 등을 데이터와 합리적 추론에 근거하여 도출해 내고 싶다는 생각에 KAIST 기술경영학부로 대학원을 진학하였습니다.

기술경영이라는 분야를 짧게 정의 내리자면 정부나 기업, 플랫폼 등의 기술적 변화, 정책 설정 등 여러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등 종합적 평가로 수여되며, 김연아, 김제덕, 손연재 선수, 가수 이찬혁 님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해 온 상입니다.

2022년 저 또한 영광스럽게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는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닌, 가족, 선후배, 친구, 학교 등 많은 인연들이 지금의 저와 이 상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생각에서 상금을 광운대학교와 KAIST 기술경영학부에 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며 저만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현재 저는 InssTek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며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전략기획, 기술 분석, 마케팅, R&D, 투자유치, IPO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대표라면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박사과정 진학과 로봇 분야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기술경영을 전공한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성은 물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에는 작은 규모더라도 탄탄한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상 완료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 개발과 사업 전개를 위한 투자 유치 및 지원 사업 등을 계획 중입니다.

광운대학교는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입학처의 초청을 받아 신입생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에서 ‘대학에서는 능동적으로 기회를 찾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부터도 학생회 활동을 포함,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점차 성장하고 더욱 넓은 시야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그리고 앞으로 입학할 후배분들께서도 광운대학교의 자원과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 큰 성장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나주리 동문(화학공학과 05)

국제 학계가 주목하는 英 플리머스대 암 연구원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 과정을 거쳐 현재 영국 플리머스대학교(University of Plymouth)에서 암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나주리 동문. 광운대 근처에서 나고 자라 남다른 애교심을 간직한 그녀는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계기부터 도전의 순간,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연구란,
멈추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광운대에서 배운 다시 일어서는 힘

Q. 광운대 시절의 경험이 어떤 밑거름이 되었나요?

광운대는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아주 중요한 터전입니다. 연구자로서의 태도와 시각 대부분은 광운대에서의 경험과 훈련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불편함과 어려움, 틀리고 다시 도전해야 했던 경험이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학년 수업 때 계산을 자주 틀리던 저희를 엄하게 지도하시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다. 하지만 모르는 상태로 배우려 하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다”라는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고3 시절 교재를 다시 펼쳐 공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Q. 연구자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1년간 휴학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하고, 이어서 3개월 동안 유럽을 혼자 여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



다. 스무 살,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하던 시절 문득 ‘외국에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닿았고, 복학 후 화학공학과 학부 연구생을 경험하면서 선배들의 연구를 보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PCR을 통해 target gene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석사를 하고 생명공학을 공부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의 좌절과 재도전

Q.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서의 연구 주제와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서울대학교 의과학과 박사과정에서는 암 치료를 위해 DNA damage repair를 조절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도전적이었던 순간은 석·박사 통합 6년 과정을 마치고 박사 심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제 논문을 검토하시고 “동물실험 n=3으로는 부족하다”며 심사를 연기하시고 하셨습니다. ‘박사를 따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고립되었던 때였는데,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보다, 반복된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는 것이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Q. 옥스퍼드대학교에서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서울대 졸업 일주일 만에 옥스퍼드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동물실험 관련 자격 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수님께 자유롭게 질문하는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의 흐름을 끊는 게 부담스러운데, 이곳에서는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이 제게 직접 질문을 던지셨을 때 긴장도 됐지만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질문하기 전 ‘너무 모르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예전보다 훨씬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향한 작은 돌파구

Q. 지금 집중하고 계신 연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암을 더 민감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입니다. 현재 뇌수막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화학치료 방법이 없어 방사선 치료 의존도가 높습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 전에 종양이 같은 선량에도 더 큰 치명타를 입도록 ‘감작제(radiosensitizer)’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세포를 약하게 만든 뒤, 두 번째 단계에서 방사선으로 암세포에 더 큰 타격을 주는 전략입니다.

Q. 나에게 연구란? 본인만의 연구철학도 말씀해 주세요.

연구의 일상은 곧 실패와의 공존입니다. 한 달 준비한 실험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받아들이며 서두르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려 합니다. 저의 연구철학은 간단합니다. “그냥 열심히 합니다.” 전성으로 하지 않고,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해나가는 것. 단순하지만 제게 많은 기회를 열어준 원칙입니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Q.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대학 시절에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인생적·학문적 자산이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방학 때 학교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배움은 교실 안이 아니라 어디서든 이루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광운대는 적절한 실패와 성공을 두루 경험한 동료들이 많고, 교수님과 선배 네트워크도 든든합니다. 그래서 더 도전할 힘을 주는 곳, 그것이 광운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담은 광운대학교 스포츠 기자단



ARMAS



무적함대처럼, 승리의 순간을 기록하는 아르마스

- interviewee -

아르마스 김예진 편집장(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1)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스포츠기자단 아르마스 편집장을 맡고 있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1학번 김예진입니다. 아르마스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소속의 스포츠 취재 및 콘텐츠 제작 동아리입니다. 현재 교내 운동부인 축구부와 아이스하키부를 취재하며 기사,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기록하며, 학내외에 알리는 학생 주도형 스포츠 미디어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운 스포츠의 강인함과 에너지를 전합니다

동아리명 ‘아르마스(ARMAS)’는 본교 교호인 ‘아르마다 인벤시블(Armada Invincible)’에서 착안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Armada Invincible)를 어형 변화한 말로, ‘모든 경기에서 필승·전승·압승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다루는 채널인 만큼 강인하고 에너지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아르마스의 창립은 국내 스포츠 미디어가 활성화되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교내에는 축구부와 아이스하키부가 있었지만, 이들의 활동을 외부에 알릴 공식 기자단이나 프런트 조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르마스가 설립됐습니다.

U리그 시즌에는 경기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기사 작성,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실전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시즌기에는 전국 대회 출장이나 선수들과의 기획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 전달을 넘어 현장의 분위기와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생생하게

아르마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현장성’입니다. 대학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처럼 중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취재를 통해 생생한 경기 분위기와 선수들의 모습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생생하게’가 저희 운영 원칙이자 사명감입니다.

서로 협업하며 열정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 **영상팀** 경기 영상과 선수 인터뷰 촬영·편집
- **디자인팀** SNS에 업로드될 포스터, 경기 홍보 이미지 등 제작
- **취재팀** 경기 상보 기사와 수훈 선수 인터뷰 작성

아르마스는 현재 축구부와 아이스하키부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영상팀·디자인팀·취재팀으로 나뉘어 협업하며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비시즌기에는 팀 구분 없이 스포츠 관련 기획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은 동아리원들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규 시즌에는 경기 일정 사전 홍보 → 당일 촬영·취재 → 경기 후 콘텐츠 제작·업로드 순으로 운영됩니다. 경기 당일에는 최소 한 시간 전 현장에 도착해 카메라 세팅과 워밍업 촬영을 진행하고, 경기 중에는 사진·영상 기록과 동시에 주요 장면을 관찰하며 기사 작성을 준비합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수훈 선수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아르마스 공식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됩니다. 기사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스포츠 ‘대학스포츠’ 섹션에서, 영상과 이미지는 인스타그램(@kw_armas_official), 페이스북(광운대학교 스포츠 채널 아르마스), 유튜브(광운대학교 스포츠채널 아르마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학 생활을 경험하세요

광운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은 학생 자치 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아르마스를 비롯해 응원단, 비마랑, 방송국 KWBC 등 다양한 자치 단체들이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갑니다.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도전 정신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광운대만의 큰 매력입니다. 미래의 광운대 후배들에게는 ‘주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대학 생활’을 권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얻는 성취는 분명 특별할 것입니다.

아르마스 공식
SNS 및 플랫폼



11년만의 축구 결승 무대, 그 감격 속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제61회 추계 전국대학축구연맹전 결승전 취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광운대 축구부는 11년 만에 결승 무대에 진출했고, 치열한 승부 끝에 승부차기 접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아르마스 활동 4년 동안 결승전을 직접 취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더 특별했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늘 투지를 보여주는 선수들이지만, 결승전 무대에서는 더욱 단단하게 뭉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열기와 감동을 생생하게 담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취재였습니다.

현장과 대학을 연결하여 더욱 큰 합성이 모여지도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프라인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홈경기 현장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기획해 광운대 운동부의 인지도와 응원 문화를 높이고 싶습니다. 현재 축구부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외부 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내에 축구부의 존재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응원 문화 형성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홈경기 당일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넘어 현장과 학교를 연결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콘텐츠로, 합성으로, 우리 함께 광운을 응원합시다!

영상이나 편집을 몰라도, 글을 잘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진심이 있어야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때 만들어지는 콘텐츠야말로 진정성이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마스에 대한 후배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울러 광운대 축구부와 아이스하키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를 대표해 리그와 대회에서 멋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땀과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정과 배움, 그리고 성장

아르마스 기자단이 말하는 우리 이야기

원동력이 된 4년의 경험

김예진(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1)

저에게 아르마스는 대학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동아리였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열정과 애정을 쏟아온 활동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시작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재미있어서였지만, 점차 그 활동에 진심이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현장을 찾고,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순수한 흥미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몰입이었습니다. 아르마스는 단순한 동아리를 넘어, 제가 ‘어떤 태도로 세상과 일에 임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뜨겁게 살아난 열정

유지현(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1)

저에게 아르마스란 ‘열정’입니다. 취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땀과 응원이 뒤섞인 현장을 마주하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제가 가진 열정이 더 뜨겁게 살아났습니다. 매 경기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열정을 담아낸다는 책임감과 몰입 속에서 저 역시 더욱 뜨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창구이자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록이 된다면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선수들과 학부모임들의 말씀은 저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4년간의 기자단 활동은 어느덧 제 대학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열정을 키워준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덕업일치의 감동

심동현(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

저에게 아르마스 활동은 덕업일치의 순간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제가 선수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직접 취재하고 전달한다는 것은 단순한 취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스포츠를 보고 응원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직접 참여한다는 행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실무로 이어진 배움

조한동(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

저에게 아르마스란 배움을 실무로 이어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의 장입니다. 디자인팀, 취재팀에서 활동하며 ‘백두대간기 제58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결과 포스터’, ‘제59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프리뷰·결과 포스터’, 각종 인터뷰 및 상보



기사 등을 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 익힌 포토샵, 일러스트 툴을 실전에 활용하며, 제가 제작한 디자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 제가 쓴 기사를 통해 광운대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뜻깊었고, 또 다른 배움의 장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성장의 시작점

김윤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

아르마스 활동은 제 대학생활의 중심이자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축구부와 아이스하키부를 취재하고, 포스터와 영상을 제작하면서 수많은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협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실무 경험은 제 커리어와 포트폴리오에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동아리 활동을 넘어,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걸음 다가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첫 용기의 결실

유승연(정보융합학부 22)

대학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낸 ‘용기’였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본 포스터 하나에 마음이 설렘, 그 떨림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역할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여름이면 땀이 흐르는 운동장에서, 겨울이면 얼어붙는 링크장에서 선수들과 기자단이 함께 만들어내는 순간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기록해 왔습니다. 선수들이 한 시즌을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기자단으로서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기억들이 먼 훗날의 저를 지탱해 주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 믿으며, 지금처럼 꾸준히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직접 느끼는 현장감

신석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4)

저에게 아르마스 활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현장에 직접 들어가 선수들의 열정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그 순간을 기록하며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관람자가 아닌 ‘기록자’로서 현장 안에 있다는 것은 제가 가진 관심과 열정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감동과 배움은 대학생활의 큰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5 상반기 광운 ISSUE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실용주의 교육의 가치를 기억하다

광운학원 설립자 화도 조광운 박사, 제45기 추모식 거행



학교법인 광운학원(이사장 조선영)을 설립한 화도 조광운 박사의 제45주기 추모식이 지난 2025년 4월 18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설립자묘역에서 진행되었다. 광운대 정석재 기획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식은 조선영 이사장을 비롯한 광운학원 산하 교직원 및 학생들 약 200명이 참석했다. 조선영 이사장은 “광운학원 창학 100주년을 앞두고 올해는 화도 조광운 설립자께서 직접 남기신 수필을 엮은 자료집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게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 광운의 창학 정신과 교육 이념을 바로 세우고 계승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거대 AI 시대의 정책 리더로 임명되다광운대 배경훈 동문(전자물리 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

본교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한 배경훈 동문이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배 장관은 국내 대표 AI 전문가로, LG AI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해 온 그의 이번 장관 임명은, AI 기반 국가 전략을 강화하려는 정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배 장관은 본교에서 전자물리학사, 전자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마친 뒤, 미국 컬럼비아 서던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탈레스,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등에서 기술개발 실무를 경험하고 2016년 LG그룹에 합류해 LG경제연구원, LG전자 등에서 AI·빅데이터 전략을 이끌었다.



광운인의 투지와 열정으로 6연속 우승을 이끌어 내다

아이스하키부,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금메달 ‘꽤’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부(감독 김영조)가 지난 2025년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강릉하키센터에서 진행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대학부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에서는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7:0의 대승을 거두며 우승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부는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연승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 광운대 아이스하키부 김영조 감독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불타는 투지와 열정으로 경기를 우승으로 이끌어 준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초융합 산업을 선도할 광운 미래 100년의 시작을 알리다

창학 100주년을 향해, 광운 창학 91주년 기념식 개최

광운대학교는 지난 2025년 5월 19일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창학 9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 김민수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해 광운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조선영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창학 100주년을 향해 가는 이 순간, 우리는 실사구시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광운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근속상(30년 근속 10명, 20년 근속 18명, 10년 근속 9명), Best Teacher상(6명) 등 광운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교수 및 직원들에게 시상이 진행되었다.

캠퍼스 소식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제13대 총장에 윤도영 교수 선임



학교법인 광운학원(이사장 조선영)은 2025년 6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광운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윤도영 교수를 선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1993년부터 광운대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윤 신임 총장은 교무처장, 공과대학장, 환경대학원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학내 행정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표창(국가산업발전), 서울특별시 시장 표창(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주)아이센스
매치업 수강 학생들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기증해

i.sens 광운대학교가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대표 남학현)로부터 오백만원 상당의 연속혈당측정기를 기증받았다. 기부된 물품은 △케어센스 에어 40대 △케어센스N Eco 40대 등으로 해당 장비들은 광운대학교 매치업(Match) 사업 심화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전기화학 기반의 센서 제작을 배우는 실습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운대학교 매치업(Match) 사업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표 기업인 (주)아이센스와 협력하여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운대학교의 국제화 전략 가속화
골프 국가와 교육 협력 확대한다!



광운대학교는 지난 2025년 3월 18일(화) 2개 골프 국가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인제 양성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압둘아지즈 알다엘 문화원장과 주한오만대사관 아흐메드 알마마리 2등 서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광운대 측에서는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을 비롯해 관련 학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광운대는 걸프국가 학생들이 광운대 영어트랙 과정 입학과 공동학위과정(2+2, 1+3, 3+2) 및 공동연구, 기업인 및 현직자 대상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
‘지능형로봇 마이크로모듈’ 성적우수자 장학금 수여식 개최



광운대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로봇학부 정문호 교수)은 2024년도 2학기 지능형로봇 마이크로 모듈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9개 학과 57명에게 총 3,5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적장학금은 SS급, S급, A급 등 총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2024학년도 2학기에는 SS급 성적우수자 11명, S급 성적우수자 13명, A급 성적우수자 33명을 선발하였다.

광운대-디지털헬스산업협회&스마트헬스케어협회
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광운대학교는 지난 2025년 3월 27일 광운대 80주년기념관에서 신산업 분야 특성화 발전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매치업(Match)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김영웅) 및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회장 김세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해당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에 협력할 계획이다.

광운대학교 HUSS사업단-일본 신수대
한일의 공생과 지속가능한 협력 세미나 개최



광운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사업단, 단장 이해영 교수)은 지난 2025년 3월 5일(일본 신수대학과 한일 학생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의 공생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글로벌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이 지향하는 ‘공생’과 ‘지속 가능한 협력’의 가치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광운대학교-일본 온도 홀딩스 주식회사
업무협약(MOU) 맞손



광운대학교는 지난 2025년 4월 2일 광운대 화도관 혁신전략회의실에서 일본 온도 홀딩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상원 대외부총장, 김상연 대외국제처장, 이춘원 건설법무대학원장, 이준희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부단장, 윤경훈 특임교수가 참석했으며 온도 홀딩스 측에서는 아마자기 토시키 대표를 비롯해 시라이시 준야 전무이사, 스스키아 듀야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로 체험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지역 개발 및 일본-대한민국 간 국제 교류 방면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광운대학교-국립창원대학교
첨단산업 교류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맞손



광운대학교와 국립창원대학교가 지난 2025년 4월 9일 첨단산업 분야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첨단산업 분야 혁신 R&D 과제 공동 발굴 △첨단산업 분야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공동 운영 △첨단산업 분야 공동교육과정 및 공동 학위과정 운영 △첨단산업 분야 관련 학회 신설 및 정기적 세미나 공동 개최 등 첨단산업 분야 산학협력에 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광운대학교-(주)하나금융그룹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업무협약(MOU) 체결



광운대학교는 지난 2025년 4월 11일 화도관 혁신전략회의실에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과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광운대학교가 안정적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팀 발굴 및 육성과 오프라인 창업 교육 운영 장소 지원, 지역 창업지원팀을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운대학교 HUSS사업단
K-문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공생의 길을 걷다



광운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사업단, 단장 이해영 교수)은 지난 2025년 4월 2일부터 3일 동안 ‘K-문학 속 글로벌 공생 정신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60여 명의 학생은 광주, 해남, 목포 일대의 한국문학 관련 명소를 탐방하며 한국 문학 속에 담긴 ‘글로벌 공생’ 정신을 이해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문학의 콘텐츠와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학협력단-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
글로벌 IP 기술사업화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광운대 산학협력단(단장 정영욱)은 지난 5월 8일(목) 광운대 누리관에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부사장 배동석)와 ‘글로벌 IP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기반으로 △주요 기술 분야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기술 분석 △글로벌 IP 거래 및 라이선싱 등 수익화 프로젝트 추진 △기술개발 공동수행 △기술매칭 및 기술사업화 등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운대-조도푸르 인도공과대학 강력한 제휴
글로벌 첨단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



광운대학교는 지난 2025년 5월 14일 조도푸르 인도공과대학(IIT Jodhpur)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며 두 기관 간의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31일 체결된 양 대학 간 MOU를 바탕으로 AI, 로봇, 전자바이오물리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운대학교는 현재 인도 내 14개 고등교육기관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번 IIT Jodhpur와의 협력은 인도 명문 공과대학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광운대, 에티오피아의 미래 도시를 설계하다!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나서



광운대학교는 지난 2025년 5월 16일 에티오피아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디지털 행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도시 인프라부, 한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이민정책연구원(MRTO)과 함께 ‘한-에티오피아 지속가능한 그린·스마트 도시 개발 협력 다자간 MOU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의 도시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광운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전공박람회 성료



광운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탐색을 위한 ‘2025 광운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전공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진입 가능한 24개 학과(부)가 모두 참여해, 전공에 대한 정보와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티스트 지코, 광운대학교에 발전기금 기부



아티스트 지코가 소속사와 함께 광운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코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운대학교 축제 월계축전 ‘아이네스(AINES)’에 초대 가수로 출연해 공연을 펼쳤다. 지코는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꾸준히 열렬한 환대를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학교에 작은 마음을 보태기로 했다. 전달한 기부금은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배움은 평생이다’
광운대학교 서울 RISE 핵심 과제 주관



광운대학교가 서울특별시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서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두 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과제를 통해 광운대는 미래형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며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광운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상성전자 실무진과 함께하는 SW/AI 전문가 특강 개최



광운대 인공지능융합대학(학장 박병준)이 주관하는 ‘2025 학년도 1학기 SW/AI 전문가 특강’이 지난 5월 15일 새빛관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은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조장원 부장을 초청해 ‘부장님이 원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재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특강은 단순한 기술 강연을 넘어, 현장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실무 감각을 키우고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운대학교-미국 볼 주립대학교
글로벌 공생 융합인재양성(HUSS)을 위한 국제교류



광운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은 지난 5월 29일, 미국 볼 주립대학교(Ball State University) 학생들을 초청해 ‘Global Sustainability Through Media and Campaign’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운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진행된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AI시대의 저작권, 국가별 재활용 시스템,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미 대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실습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광운대학교 주관
제3회 매치업 심화과정 경진대회 성황리 개최



광운대학교가 주관하는 ‘제3회 매치업(Match業) 심화과정 경진대회’가 지난 5월 30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바이오헬스 및 로봇 분야에서 총 40개 팀이 참여해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고 교육 효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아이센스, ㈜엔젤로보틱스, (사)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등 산업계 대표 기관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광운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주최하여 교육과 산업 현장 간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했다.

광운대학교 HUSS사업단
‘2025 글로벌 공생 생생형 AI 영어번역 경시대회’ 성료



광운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사업단, 단장 이해영 교수)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생과 성장을 위한 ‘2025년 글로벌 공생 생생형 AI 영어번역 경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시상식은 지난 6월 3일 광운대학교내에서 열렸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전자공학과 김진우 학생이 차지했으며, 이재은(영어산업학과), 김남규(영어산업학과), 구지은(경영학부), 주덕진(전자재료공학과) 학생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광운 동문이 한 뜻으로
2025 참빛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 성료



지난 6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개최된 ‘2025 참빛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에는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선수로 구성된 유소년 아이스하키 클럽 8개 팀과 루키부 2개 팀 등 총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사)광운대동문참빛교육회가 주최하고, 광운대학교와 광운대학교총동문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창립 후 첫 사업으로 마련된 뜻깊은 행사다. 이틀간의 열전 끝에 A조 1위 대구스카이이글스와 B조 1위 대구블랙나이즈가 결승에서 맞붙었고, 결전 끝에 대구스카이이글스가 초대 우승컵을 차지했다.

광운대학교 RISE 사업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설명회 성료



광운대학교 참빛인재대학(학장 김성길)은 지난 2025년 6월 26일 80주년 기념관 201호에서 지자체(노원구청, 양천구청) 및 13개 협력기관 관계자, 성인학습성공센터(센터장 조수영)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RISE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사업 설명 및 상시협의체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RISE 사업의 취지와 지역 평생교육 고도화에 대한 현안을 공유 발굴하고,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기관의 역할과 참여 방안 및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운대학교-퀀텀에어로
국방 AI 인재육성 관련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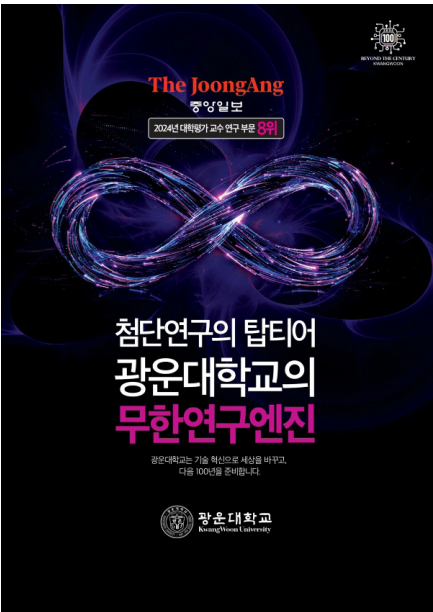
광운대학교는 (주)퀀텀에어로(이사회 의장 전동근)와 AI 자율비행 드론 기술의 고도화 및 국방 AI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국방 AI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무인기 및 AI 기반 방위산업 기술의 국산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AI 분야의 기술 실용화는 물론, 차세대 방산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운대 주관 글로벌 공생 HUSS 컨소시엄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공동 성과 창출’에 앞장



광운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융합캠프(HUSS 아카데미)에 참여해 10개 컨소시엄, 50개 대학과 공동 성과 창출을 이끈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문사회의 지혜가 세상을 바꾼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본 캠프는 지난 2025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2025 HUSS 융합캠프(아카데미)는 참여하는 10개 HUSS 컨소시엄 및 50여 개 대학이 참여하며, 인문사회 융합인재의 역량 발휘와 창의적 융합사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탐티어의 가능성을 시각화”
2025년 광운대학교 광고 캠페인 공개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처장 김상연) 홍보팀은 2026학년도 입시와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광고 시안 3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광운대학교만의 차별화된 연구 역량과 교육 철학을 핵심 메시지로 정립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자칫 비슷해 보일 수 있는 대학 광고의 틀을 탈피하여 광운대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담아낸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돋보인다.

광운대학교-영국 킹스턴대 국제 협력 강화
윤도영 총장 ‘교육·창업 글로벌화 박차’



광운대학교(총장 윤도영)는 지난 2025년 7월 18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 위치한 킹스턴대학교(Kingston University London)에서 열린 박영준 석좌교수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윤 총장이 공식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도영 총장은 이번 일정에서 킹스턴대학교 스티븐 스파이어(Steven Spier, PhD) 총장과의 만남을 통해 양교 간의 공동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체결된 양교 간 창업 및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협력 MOU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광운대학교 참여
2025 호주 글로벌 리소스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성료



본교 NCI창업패키지사업단(단장 박철환)은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IdeaQuest 창업캠프(이하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총 3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참가자들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광운대 HUSS-아마존코리아(AWS)
‘빅테크 진로체험 융합프로젝트’ 진행



광운대학교(총장 윤도영)가 주관하는 글로벌 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HUSS) 컨소시엄은 지난 8월 1일,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본사(역삼동 소재)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사회+아마존을 만나다: 빅테크 진로체험 융합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총 5개 대학 35명의 학생이 참여한 본 프로그램은 △IT 세일즈 직무 특강 △인문계 출신 빅테크 엔지니어의 성장 스토리 공유 △바이브 코딩 실습 △아마존코리아 사무실 탐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광운 성과

정보융합학부 박규동 교수 연구팀
HCI Korea 2025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및
Creative Award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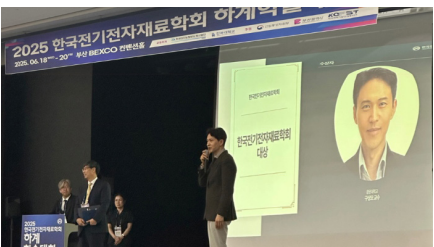
정보융합학부 박규동 교수가 지도하는 디지털경험분석 연구실(IDEA Lab.)과 학술소모임(인간컴퓨터상호작용 커뮤니티, CHIC) 학생들이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HCI Korea 2025 학술대회에 대거 참여 및 수상하면서 학문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전자재료공학과 구상모 교수 연구팀
2025 화합물전력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



본교 인공지능융합대학(학장 박병준) 학생들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교육봉사단 ‘소원’ 봉사단이 서울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엔드센터)에서 주최한 ‘2024년 노원 청소년미래과학 축제’에 참여했다. 행사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에 혜성여자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는 미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고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자재료공학과 구상모 교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대상 수상



전자재료공학과 구상모 교수가 ‘2025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대상은 (사)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약 2,500명의 회원 중 학술적 성과, 학회 활동, 산업 및 학문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단 한 명에게만 수여된다. 구 교수는

활발한 특허 출원과 국책과제 수행은 물론, 학회 이사 및 부회장직을 역임하며 학술행사 기획 및 학회 운영 전반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자공학과 손문성, 오별님 학생
한국 MEMS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전자공학과 김현수 교수 연구팀의 석사과정 손문성 학생, 오별님 학생이 지난 2025년 3월 26일부터 개최된 ‘2025년 마이크로 나노시스템학회 춘계 학술대회(제27회 한국 MEMS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손문성 학생은 3차원 전극 기반 바이오센서를 개발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오별님 학생은 압타미 기반 바이오센서와 미세유체 기술을 통합한 현장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화학공학과 주민영, 이시윤 학생
한국생체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학술상 수상



화학공학과 이택 교수 연구팀의 주민영, 이시윤 석사과정생이 지난 2025년 3월 28일에 개최된 ‘2025년 한국생체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각각 SOC(Student Oral Competition) 부문과 PO (Poster session) 부문에서 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국생체재료학회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병·의원의 연구자 3,400여 명이 참여하며, 학술 및 산업 간 정보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융합학부 ‘camm’팀
2025 시스코 이노베이션 챌린지 준우승 수상



정보융합학부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camm팀(박천수, 강민혁, 전서연, 유아름, 이상 정보융합학부)’이 2025 시스코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camm’팀은 “시스코 Meraki 카메라를 이용한 CCTV 영상 비식별화 조회 서비스”를 주제로 아이디어톤에서 Best Challenge를, 해커톤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 받았다.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주관 AID 묶음강좌 신규사업 선정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윤미)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재직자 AI·디지털(AID) 집중과정 AID 묶음강좌’ 신규사업에 선정되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2018년 교육부 주관 사업 첫 선정 이후 8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선정으로 다년간 K-MOOC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축적한 원격교육 개발·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인공지능융합대학 대학원·학부생 팀
한국생산관리학회 ‘장려상’ 수상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지난 5월 23일(목) 열린 2025 한국생산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당 대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스마트 공장 구현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 AI 기술과 지속 가능성 관점의 접근’을 주제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상팀은 고예진(인공지능융합학과 석사과정), 조연경(정보융합학부 학사과정), 이상민 교수(지도교수)이다.

경영학부 이석준 교수와 학생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 따뜻한 기부



경영학부 이석준 교수와 ‘디지털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실무’ 강좌 수강생들은 지난 5월 30일 제3회 매치업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주)아이센스로부터 베스트클라보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 100만원을 ‘디지털 서

비스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전액 서울시 어린이 병원에 기부했다. 한편 광운대학교는 현재 바이오헬스(주)아이센스와 로봇 분야(주)엔젤로보틱스)의 매치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융합학과 장효영 석사과정생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인공지능융합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효영 학생(지도교수 이상민)이 2025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장효영 학생은 「잠재 확산 모델을 활용한 야외 물류 환경에서의 비지도 학습 기반 저조도 향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저조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영상 복원이 가능한 딥러닝 기반 Low-Light Image Enhancement(LLIE) 기법을 제안했다.

광운대학교
특허청 ‘2025년 공공 IP 사업화 성장 지원사업’ 신규 선정



광운대학교가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 IP 사업화 성장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광운대는 2025년부터 3년간 총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지식재산 기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화학공학과 김영훈 교수 연구팀
춘계 한국공업화학학회 Best Paper Award 및 우수논문상 수상



화학학과 김영훈 교수 연구팀이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2025 한국공업화학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Q1 저널인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인용도가 가장 높은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디지털 컨설턴트 양성소’로 도약
HUSS 사업 신규 연합체 최종 선정



광운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신규 연합체에 최종 선정됐다. 전남대학교(주관), 국립공주대학교, 부산대학교, 홍익대학교와 함께 구성된 이번 컨소시엄은 ‘인간과 디지털 경제의 공존’을 주제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PATH-FINDER 인재 양성’에 나서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85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경영학부 이승환 학생
‘2025 창업발명공모전’ 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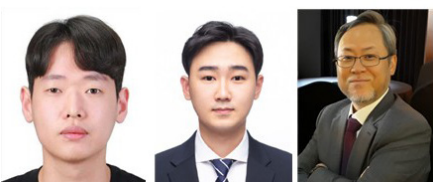
경영학부 이승환 학생(지도교수 박아름)이 지난 2025년 6월 27일에 진행된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주최의 2025 STARTUP INVENTION CONTEST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 이승환 학생은 “BI(Tableau) 기반의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론: SSG 랜더스의 KT 위즈 강백호 영업 의사결정을 위한 긍정적 요인 분석”을 주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전자통신공학과 대학원생
‘2025 IDEC Chip Design Contest’ Best Poster Award 수상



광운대 전자통신공학과 소속 대학원생들이 ‘2025 IDEC Congress Chip Design Contest’에서 Best Poster Award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의 주인공은 전자통신공학과 한찬흠 박사과정생과 이기수, 이준철 석사과정생으로, 이들은 채주형 교수 연구실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작년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성과다.

전자재료공학과 조원주 교수 연구팀
2025 NANO KOREA Best Poster Award 수상



전자재료공학과 조원주 교수 연구팀이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NANO KOREA 2025 (The 23rd international Nanotech Conference & Exhibition)’에서 Best Poster Award를 수상했다. 수상 포스터는 “Innovative pH Sensing Membrane: Sol-Gel Processed PZTO Film with Microwave Annealing Surface Treatment”로 ISFET 센서 플랫폼에서 PZTO 재료를 적용한 고감도 pH 감지 특성 향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전기공학과 학생들
제어로봇시스템학회 ICROS 2025 학부생 논문상 수상



전자정보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부생들이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주최한 2025 하계학술발표대회(ICROS 2025)에서 ‘학부생 논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최주엽 교수의 지도를 받은 백선규(1팀), 주민호, 유성민(2팀) 학생의 연구 결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수상 논문은 각각 「로봇 구동용 유도전동기 PWM 인버터의 PR제어기 기반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 「SVPWM과 데드타임 보상 기법을 활용한 유도전동기 구동용 3상 인버터 벡터 제어 및 효율 향상 연구」이다.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나젠드라 카우식 교수
‘Fellow of Eminence’ 수상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나젠드라 카우식(Nagendra Kaushik)교수가 인도 뉴델리 India International Centre(IIC)에서 개최된 ‘2025 세계 청년 기술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고등교육개발원으로부터 ‘Fellow of Eminence’ 상을 수상했다. 카우식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W-AHEAD 한국 지부 수석 코디네이터(Chief Coordinator, South Korea Division)로 공식 추천받는 영예도 안았다.

광운대학교 축구부
제61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쾌거



광운대 축구부(감독 오승인)가 지난 7월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한국대학축구연맹 주최 제61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태백산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운대 선수들은 끈끈한 조직력과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결승에 오르는 전국 대학 축구 무대에서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팀 성과와 더불어 개인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 이찬호 선수가 우수선수상, 금융יש 선수가 득점상, 이준한 선수가 도움상, 그리고 신태향 선수가 영플레이어상을 각각 수상하며 팀의 공격과 수비 전반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또한 오승인 감독과 이남수·김지훈 코치는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린 지도력을 인정받아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며 지도진과 선수 모두가 영예를 나눴다.

광운대 농촌봉사활동 학생들
전라북도 익산시로부터 표창 수상



광운대학교(총장 윤도영)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학비대위”)는 2025학년도 여름방학을 맞아 전라북도 익산시 일대에서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이하 “농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25년 농활에는 총 50명의 광운대 재학생 및 휴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익산시의 주요 농촌 지역에서 3박 4일 간 농작업 지원, 마을 환경 정비,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동 등을 활발히 펼쳤다. 총학비대위는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익산시에서 농활을 진행하였으며, 익산시 농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광운대 학생 총 15명에게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는 표창을 수여했다.

인공지능융합학과 디지털경험분석연구실(IDEA Lab.)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우수상 수상



인공지능융합학과 디지털경험분석연구실(IDEA Lab.) 박
규동 교수(정보융합학부)와 이주희 학사과정(미디어커뮤
니케이션학부, 정보융합학부 복수전공)이 지난 7월 18일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이 주관하는 ‘제7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인 ‘학교 내 학업성취 격차 공공
데이터 자동화 수집과 인사이트 연계 대 AI 대시보드 구
축’은 교육 분야의 핵심 이슈인 학업성취 격차 문제를 데이
터 기반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점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포츠융합과학과 박석 교수 스포츠의학영양연구소,
제37회 88서울올림픽기념국제학술대회 ‘Best
Paper-Poster Award’ 수상



스포츠융합과학과 스포츠의학영양연구소 박석 교수와 노기
웅 박사가 지난 8월 22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제37회 88
서울올림픽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Best Paper-Poster
Award’를 수상했다. 수상 연구는 축구 경기 하프타임에 적용
되는 다양한 피로 회복 기법이 선수들의 대사 반응과 경기 수
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것이다. 연구팀은 무작위 교
차설계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회복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수 동정

영어산업학과 김흥기 교수
한국현대영미학회 제20대 회장 선출



영어산업학과 김흥기 교수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현대영미
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회장
으로 선출되었다. 2005년부터 재직
중인 김 교수는 2016년에는 본교를
대표하여 국가로부터 CK-II 수도권

대학특성화우수사업단에 선정된 후 단장을 맡아 개인창의
성 SHOBS형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대학의 특성
화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했다.

경영학부 조은성 교수 논문
Google Scholar 기준 1,000회 이상 인용



경영학부 조은성 교수의 논문 “An
updated guideline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판별 타당도
평가의 최신 지침)”가 2022년 게재된
후, 불과 3년 만에 Google Scholar
기준 1,000회 이상의 인용을 돌파하
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판별 타당성 평가에서
기존 방법론이 지니던 논리적 허점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
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일권 교수
신간 『여론을 둘러싼 갈등 해부서』 출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일권 교수
가 신간 『여론을 둘러싼 갈등 해부서 -
왜 여론은 사람마다 다를까』(컬처룩
미디어 총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여
론 형성의 과정부터 여론이 전달되고
해석되는 과정까지 폭넓게 조망하며,
각기 다른 여론이 형성되는 배경과 갈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경영학부 최재운 교수
AI 교양서 2권 및 『AI, 인문학에 길을 묻다』 출간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최재운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과 일반 독자를 위해 집필한 AI 학습
형 교양서 2권 『한 발짝 더, AI 세상으로』(자음과모음)와
『1일 1단어 1분으로 끝내는 AI 공부』(글담출판사)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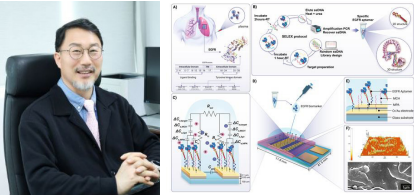


했다. 또한 최 교수는 ‘AI 시대의 인간다움’이라는 근본적
인 질문에 탐색하는 『AI, 인문학에 길을 묻다. 인간은 어디
까지 인간일 수 있을까』도 출간했다.

연구(논문)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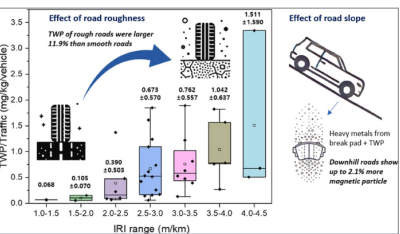
가나다 순으로 배열

김남영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



- InfoMat(IF: 24.798) 저널지 “2024 InfoMatExcellent Papers” 선정
- 폐암 검출을 위한 초감도 및 신속 바이오 센서 개발 성공

김영훈 교수 연구팀[화학공학과]



- 도로의 거칠기와 경사도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타이어마모입자) 및 중금속 배출 특성 규명
- 자외선과 적외선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차광용 나노구조체 필름 개발

박세규 교수 연구팀[화학공학과]



- 충남대 김태근 교수팀, 미 PNNL Dr. Yuyan Shao팀과 함께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 전지용 다공성 전폴전극 소재, 설계, 진단 논문 출간

박재영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



- 호흡부터 인체활동까지 연속모니터링하는 통기성 센서 패치 개발
- 자가충전 웨어러블 땀이온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 땀 성분 분석 및 모니터링 가능한 멀티센서 패치 개발
- 약한 바람도 전기로 바꾸는 초소형 발전기 개발
- 임는 재할 센서 개발
- 숨소리로 건강을 체크하는 무전원 센서 개발

박철환 교수 연구팀[화학공학과]



-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 지닌 혁신적 항산화 신물질 합성
- 갈조류 기반 고효율 젖산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바이오 가치사슬 실현

신원호 교수 연구팀[전자재료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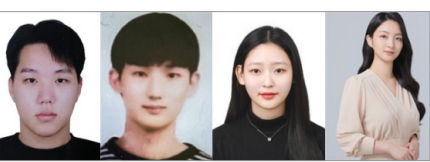
- 고에너지 리튬 메탈 배터리용 복합 고체전해질 기술 개발

심준섭 교수 연구팀[전자융합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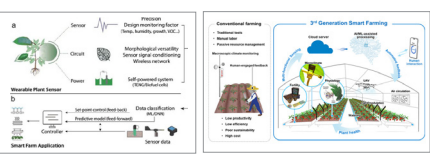
- 3차원 그래핀 기반 장수명 고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

유현준, 강태웅, 우나륜 학생[컴퓨터정보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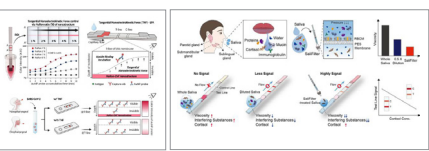
- 5G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장비 및 대규모 기계형 통신 장치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접근 인증 방식 CESA 개발 (강태웅, 우나륜 학생, 지도교수 유지현)
- 경량·고속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인증 프로토콜 LAEC 개발 (유현준, 강태웅, 우나륜 학생, 지도교수 유지현)

이기원 교수 연구팀[화학공학과]



- 울산대 이승구 교수 및 가천대 이한솔 교수와 함께 스마트 농업을 위한 웨어러블 독립형 센싱시스템 개발 논문 출간
- 차세대 스마트팜을 위한 E-plant 기술 논문 출간

이도환 교수 연구팀[전기공학과]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효율을 극대화하는 대규모 샘플 풀링 기술 개발
- 나노전기운동력을 활용한 고감도 신속 면역진단 기술 개발
- 전기 없이 사용 가능한 타액 전처리 장치 ‘SaliFilter’ 개발

이예습 교수 연구실 학부 연구생[로봇학부]



- 스마트 시티용 AI 카메라 기술 ‘TEDDY 프레임워크’ 개발

이지훈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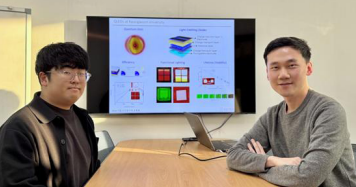
- 고전류/고온 산업 운영 조건에서 녹색 수소 생산을 위한 새로운 크롬 도핑된 NiBP 미세구 전기촉매 개발
-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도울 저비용 고효율 그린수소 FeWB 수소노 크리스트 전기촉매 개발
- 산업적 조건에서 활용 가능한 고효율 저비용 Zn/NiBP 미세구 전기촉매 개발
- 차세대 광검출 기술 구현 성공

이택 교수 연구실 학부 연구생[화학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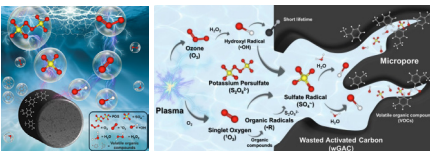
- 암 진단을 위한 전기화학적 cell-SELEX 모니터링 분석 기술 및 바이오센서 개발
- 신속한 MXene/truncated aptamer 이중층의 지카 바이러스 바이오센싱 플랫폼 개발

이현호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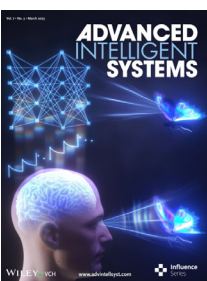
- 과잉 전하 주입으로 인한 InP 기반 양자점 발광다이오드(QLED) 열화 원인 규명

장민 교수 연구팀[환경공학과]



- 금속-유기 골격체(MOF)의 배위 조정을 통한 수중 불소이온 흡착 성능 향상 및 고효율 La-MOF 흡착제 개발
- 시간당 0.36% 과산화수소 생산 가능한 전가-촉매 물질 개발
- SnS₂이 담지된 g-C₃N₄ 광촉매의 과산화수소(H₂O₂) 생산 효율 극대화
- 과황산염과 유전체 장벽 플라즈마를 활용한 폐활성탄 미세공극 회복 기술 개발
- 3전자 산소환원경로 광촉매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수처리 기술 개발
- 물과 햇빛으로 만드는 친환경 비료, 암모늄 생산 기술 개발

장진곤 교수[컴퓨터정보공학부]



- 멤리스터 기반 인공지능 학습 정확도 향상 연구 국제 저널 인사이트 커버 논문 게재

하태준 교수 연구팀[전자재료공학과]



- Cd2+와 Hg2+ 중금속 이온의 동시 감지가 가능한 ZIF-67 금속 유기 구조체 기반의 고성능 전기화학 바이오센서 개발
- PECVD로 증착된 NO 대체가스 기반의 SiO₂ 절연막을 갖는 고성능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 개발 및 논문 표지 선정

연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최신연구성
과(www.kw.ac.kr/ko/life/research.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년을 향한 의미있는 동행 ‘함께, 광운’

光云萬萬

1만명의 동문이 함께하는 월 1만원의 기부!



광운이 기억하는 광운인의 힘!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세요.
소중한 기부는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학과(부)·대학(원)을 지정하여,
뜻깊은 마음을 직접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광운이 나아갈 미래, 광운인과 함께 나아갑니다!



간편기부(약정) 참여신청 방법

광운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기부하기→광운만만」
<https://fund.kw.ac.kr> (문의 : 02-940-5505)

※ 모금 캠페인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기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께는 소정의 학교 기념품을 드리며, 아울러 추후 진행될 「광운만만 Day」 행사에 정중히 초청할 예정입니다.



발전기금 약정명단

500억 이상
조무성 초대총장
10억 이상
삼성전자 하나은행 해동과학문화재단
1억 이상
광운대 총동문회 구관영 동문(응용전자공학 69, (주)에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국민은행 김문찬 동문(황거 대표) 김영준 동문(전자재료공학 79, 트레이비스(주) 대표이사) 대한축구협회 로봇게임단(RO:BIT) 미래환경플랜트(주)(건축공학 98, 박창영 동문) 신한은행 엄평용 동문(응용전자공학 77, (주)유진테크 대표이사) LG전자 오경호 동문(궤도원완구 대표이사) 오종택 동문(㈜인선이엔티(주)) 원흥전설(응용전자공학 68, 이제호 동문) 이강수 동문(전자재료 77, (주)아이앤비코리아 대표)(현물기부) 이웅주 동문(상원유치원) 이재령 동문(전자통신 74, 전 에릭슨엘지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임용재 동문(전자계산기공학 88, (주)미디어솔루션 대표이사) 전인구 동문(전기공학과 86, (주)테크윙 사장) 정용택 학부모(산업심리학과 정성훈) 정용호 동문(전자통신 80, (주)디지털컴 대표) 조면기 동문(㈜인프라넷 대표) 카카오페이(주) 현대자동차
1천 이상 1억 미만
APIS GS스포츠 TTC EDU(주) 가이건축사사무소(주) 간송학술장학재단(재)

강영현 동문(환경대학원 07)
강원도인프로축구단
공영삼 동문(응용전자공학 77, (주)테라텍 대표)
광운대학교 ROTC동문회
광운포럼(광운퇴직지원모임)
광주 FC
구자문 교수
국제통상학부 원우회(광무장학회)
권순철 교수(스마트융합대학원)
김기용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2018, 블랙홀볼링센터 대표)
김대홍 교수(화학공학과)
김문석 동문(경영학과 88,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김병하 동문(제주본가 대표)
김병호 명예교수(화학과)
김상률 외래교수(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성길 교수(교육대학원)
김은수 명예교수(전자공학과)
김인태 교수(화학과)
김장곤 동문(무선통신공학과 64, (주)레인보 대표이사)
김진수 동문(전자공학과 75, 아이디피시스템 대표)
김진우 명예교수(로봇학부)
김진홍 동문(전자재료 75)
김해진 동문(전파공학과 94, 전파공학과 외래교수)
김현정 동문(교육대학원 13)
김호 동문(㈜김호더래버러토리 대표)
남성전 동문(영어영문학과 08, 인사이터 대표)
남학현 명예교수(화학과)
대학원 동문회
도건우 동문(전자재료공학과 02)
도서출판 북스힐
도쿄 FC
류정범 동문(AMP 19대 회장)
마이크로트랙(주)
문동찬 (전자재료공학과 명예교수)
문지영
문한경(디지털국제공조(주) 대표)
박명식
박상열 명예교수(법학부)
박인비 동문(생활체육학과 08)

박종길 동문(산업경영학과 84)
박종문 동문(응용전자공학 68)
박철환 교수(화학공학과 93)
법무법인제이엘동탄분사무소
부경희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동산법무학과 원우회
부천 FC
블랙야크
산학협동재단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상담심리치료전공 원우회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원우회
서울시축구협회
선지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손광철 동문(정보콘텐츠학과 교수)
손정만 동문(화학공학과 91, (주)이레머티리얼스 대표)
송관호 동문(대학원 동문회장)
송영출 교수(경영학부)
수원상성블루윙즈축구단
신대성 동문(스마트마이(주) 대표)
신선일이호(주) 김선국 대표
신재호 교수(화학과)
심상렬 교수(국제통상학부)
아비스파 후쿠오카
아이센스(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엄정근 동문(전자공학과 70)
에스에스케이(주)
에스원(주)
여중섭
오환원 동문(㈜우원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우리들교회
우리은행장위동지점
우지호(가수 지코)
원종숙 동문(교육대학원 12, 교육대학원 외래교수)
원철상 동문(국제통상학과 02)
웨이브피아(주)
유선봉 명예교수(법학부)
윤경자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9)
윤도영 교수(화학공학과)
윤석재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4)
윤영자 동문(교육대학원 12)

윤육기(고.이상우 명예교수)
윤태복 동문(전자재료 80, (주)에스트라 대표)
이대희 명예교수(행정학과)
이동현 동문(대학원 전파공학 04, (주)알에프피티 대표이사)
이랜드스포츠
이문희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5)
이반스포츠
이상진 동문(경영대학원 AMP 47기)
이상철 전 총장
이상현 동문(건축공학과 89)
이상희 교수(산업심리학과)
이수미 ((주)나비코 대표)
이승현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이영미 동문(도시계획부동산학과 18)
이종민 동문(전자공학, (주)에이직랜드 대표이사)
이청호(주)에버트란 대표)
이현석 외래교수(국어국문학과)
인천 유나이티드 FC
임대순(백영전자(주) 대표)
임옥순
전남 드래곤즈
전영무 명예교수(화학과)
전자공학과 83학번 동문회
전자재료공학과 삼월회
전자통신공학과 84학번 동교회
전홍배 교수(화학과)
정동훈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준교 동문(어드벤처케이알(주) 대표이사)
조화준 동문(교육대학원 13)
진철평
치근식 명예교수(화학과)
창암장학재단
채널진
천성오 직원
천정호 교수(전자공학과, 전 총장)
최병구 동문(주)신아티앤씨 대표)
최선윤 동문(응용전자공학과 73, 강릉초당두부 대표)
최용락 동문(화학과 89)
축구부 학부모회
커미트
클럽소프트(주)

김스바이오랩
탁진국 교수(산업심리학과)
태전플란트치과
통일스포츠
파이터치연구원 재단법인
편입학원 위드스타(구.위드유편입학원)
포항 스틸러스
피앤비우창(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한병우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7)
한종희 교수(행정학과)
한태희 동문(화학과 94)
함명수
함현미 동문(교육대학원 13)
헬스바(주)
혁신전공사 (주)
현대홈쇼핑
홍일기 동문(경영대학원 AMP 50기)
홍창표 동문(전자공학과 74, 로보링크 대표)
황성재 동문(컴퓨터소프트웨어 01, (주)XYZ 대표)

5백 이상 1천 미만

JTBC콘텐츠허브(주)
KB국민은행 랙스타비마점
OITA FOOTBALLCLUB
가현신도재단
강남이 동문(교육대학원 13)
강순복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6)
고병엽 직원
광운꽃방
광운대학교 재직동문회
교육대학원 원우회
군화와고무신
김광섭 동문(교육대학원 15)
김기영(전 총장)
김영만 동문(전산 81, (주)생활의쓰임 대표)
김용혁 교수(소프트웨어학과)
김용환 동문(제어계측공학과 92)
김용희 동문(전자재료공학과 79)
김유곤
김윤현 동문(전자재료공학과 01)
김종현 교수(전자융합공학과, 전 총장)
김태훈 직원
대송이앤에프(주)

40

AUTUMN 2025 / VOL 125

41



류기환 교수(스마트융합대학원)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김윤희 직원	박수원 교수(전자통신공학과)	안테나필름(주)	이영남 동문(화학과 80)	참사랑	홍광의 동문(수학과 88)
민상원(전자통신공학과)	SC제일은행	김은죽 동문(교육대학원 13)	박수진 동문(교육대학원 13)	에드런	이윤경	채영준 동문(화학과 92)	홍순우 동문(컴퓨터공학과 14)
박경애 교수(교육대학원)	가가와	김의경(대학원 행정학과 21,	박수한 교수(로봇학부)	양산시체육회	이윤상 직원	천지산업	홍진웅 명예교수(전기공학과)
박구현	강미영	시립강북청소년센터관장)	박안나	에스티지24(현물기부)	이정훈 교수(전기공학과)	최대집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9)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주)
박석 교수(스포츠융합과학과)	강우람 동문(산업심리학과 05)	김장엽	박일우 교수(로봇학부)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이종길 동문	최상묵 동문(행정학과 84)	1백 미만
박태원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	강인선 동문(교육대학원 06)	김재미 동문(동북아통상학부 08)	박재석 동문(전자재료공학과 85)	에이에이치엔(주)	이종엽 동문	최윤정 직원	유태상
박희동 직원	건설법무대학원28기	김정수 교수(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정우 동문(경영대학원 05)	에이월(주)	이지영 직원	최재혁(스트리트쥬러스 광운대점)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베갈타 센다이	건설법무대학원24기 원우회	김정주 직원	박종구 명예교수(행정학과)	엠비자원	이창석 직원	최철순 교수(스포츠융합과학과)	KBS
브이디컴퍼니(주)	건설법무대학원25기 원우회	김주찬 교수(행정학과)	박찬호	연구인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7)	이춘원 교수(법학부)	최한설 동문(컴퓨터소프트 14)	NGUENTHI
수원FC	건설법무대학원26기 원우회	김준엽 직원	버프프로덕션	오세훈	이충근	최해욱 동문(교육대학원 09)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심동규 교수(컴퓨터정보공학부)	건원엔지니어링	김지애	변대원	오창남 학부모	이태로	카라반캠프	강민철
션웨이브텍	경남 FC	김진곤 교수(법학부)	변유경 동문(교육대학원 11)	와이낫미디어(주)	이하형 동문(대학원 02)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강순란
아이스하키부학부모회	계룡건설산업(주)	김진상(대학원 행정학과 09,	본그레이	와이앤하우컨설팅	이혁준 교수(컴퓨터정보공학부)	케임브리지(주)	강신저 동문(교육대학원 14)
안영옥산부인과	고재욱 교수(화학공학과)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장)	브라운에듀(주)	왕승찬 직원	이현 동문(대학원 02)	탁민희 동문(미디어영상학부 07)	강태경
오준희 직원	공간종합건축사(주)	김태주(상담복지정책대학원 12,	비비미디어(주)	우리은행 대구혁신도시금융센터	이현웅 동문(경영대학원 12)	탁정애 동문(화학과 90)	강황성
원흥이엔씨주식회사	곽인찬	창동청소년센터관장)	비앤컴컨설팅	우미건설(주)	이형근 교수(컴퓨터정보공학부)	태영건설(주)	강효경 동문(교육대학원 06)
윤종태	곽태형 동문(화학과 94)	김형석 교수(전기공학과)	비전홀딩스코퍼레이션	원양건축사사무소(주)	이혜영 교수(행정학과)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원우일동
이상록	광운분식	김해은	사영진 교수(화학과)	월계대반점	이해진 동문(전기공학과 07)	티웨이항공	고선아 동문(교육대학원 13)
이육진 교수(스포츠융합과학과)	광운플레이어스	김화열	삼성물산(주)	위피피(주)	일선종합건설	파라다이스세가사미	고은정
이용대	구태규	김홍빈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주)	유니비스(주)(전동류 기증)	임영균 명예교수(경영학부)	패밀리마트	고준영
이윤미 교수(화학과)	권배근	나안섭 동문(건설법무대학원 20)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제29대원우회	유알엔터테인먼트	임창국 동문(국어국문학과 90)	포스코건설(주)	공인희 동문(미디어영상학부 02)
이일태 교수(영어산업학과)	권영복	남영건설	생각을 건다(주)	유정호 교수(건축공학과)	임철희 동문(건설법무대학원 20)	표윤석 동문(전자공학과 02)	곽민희 동문(화학과 99)
이철호 동문(전자재료공학과 80)	권태복	네이버시스템	서양동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8)	유지상 교수(전자공학과, 전 총장)	임형태 동문	표정우 직원	권기성 명예교수(행정학과)
임도용 동문(교육대학원 12)	권혁용 동문(남광토건 대표)	노진이 직원	서울시아이스하키협회	유태호 동문(정보통신공학과 78)	장병녕	피에이씨건축사사무소(주)	권기청 교수(물리학과 88,
임종태 동문(응용전자공학과 66)	권혁준 동문(교육대학원 12)	뉴바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유희웅 동문(전자공학과 03)	장성균 동문(무선통신학과 73)	학지사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임창환	권현영	다인그룹엔지니어링(주)	서정훈 직원	윤복근	장홍제 교수(화학과)	한국대학축구연맹	권미현 동문(화학과 05)
장락우	극동건설	대림산업(주)	성문컴퍼니	윤이숙 교수(국제학부)	전승협 동문(법학과 03)	한국마사회	권용혜 동문(로봇학부 14)
장지훈	김경선	대우건설(주)	세그웨이 서울	윤환식 동문(통신공학과 67)	전용암	한국마이크로칩(주)	권재국
정달호 학부모(정보과학교육원 정진우)	김고는 동문(교육대학원 14)	대흥코리아주식회사	세이프라이프(주)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주)	전지현	한국방재기술(주)	권지숙 직원
정석재 교수(경영학부)	김남영 교수(전자공학과)	데이드림엔터테인먼트	솔데스크(주)	이기서 명예교수(로봇학부)	전진택 동문(전기공학과 02,	한국번역가협회	권현숙 동문(교육대학원 14)
정지혜 동문(교육대학원 15)	김명순 동문(교육대학원 14)	동부건설(주)	송승호 교수(전기공학과)	이대석 교수	(주)서울식품 이사)	한국이스포츠협회(사)	기문사
조형민 동문(전자계산기공학과 85)	김모라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사무소(주)	송시현 동문(교육대학원 13)	이도준 동문(응용전자공학 74)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주)	한미파슨스	김가진
(주)인바디	김문귀 직원	디에이치에스앤이(주)	슈엔도로시	이명래	정병태 동문(전자공학과 68)	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주)	김건희 동문(로봇학부 18)
최원기	김미경	디엔비건축사사무소(주)	시대의 시선	이병현 교수(경영학부)	정승기 교수(전기공학과)	한신공영	김경민
케이제이아이캠(주)	김민동 교수(법학부)	디엔제이	신만중 교수(법학부)	이상경 교수(법학부)	정영실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9)	한완옥 동문(전자공학과 83)	김경태
케이피앤씨 안전문화원(주)	김보경 동문(전자계산 98)	로보티즈(주)	신상훈	이상균 동문(행정학과 84)	정은진 직원	한재현 교수(경영학부)	김경호 학부모(생활체육학과 김현우)
태영건설(주)	김보영 직원	로얄종합상사	신유진 직원	이상신 교수(전자공학과)	정인준 동문(전자공학과 68)	한춘 명예교수(화학공학과)	김관식
티앤씨프로	김상건	롯데건설(주)	신일제약(주)	이상원 직원	제기흥 동문(전기공학과 74)	한태영 교수	김관일
하정인더스트리(주)	김석우 동문(교육대학원 13)	매스메스에이지(주)	신철웅	이상주 동문(정보콘텐츠학과)	조남억(시립성북청소년센터관장)	한화건설(주)	김기윤 교수(경영학부)
한국대학아이스하키연맹	김성국	모아건설	싸인텔레콤	이상훈 동문(전자공학 97)	조선애 직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주)	김길문
홍규화	김성수 동문(전자통신학과 84)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주)	쌍용건설(주)	이선호 동문(행정학과 89)	조성우 직원	한디언즈	김나영
황윤희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6)	김숙진 동문(교육대학원 14)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주)	아이스하키 선수단(대회상금)	이성희	조재희 교수(정보융합학부)	허구철 동문(전자공학과 80)	김나현
1백 이상 5백 미만	김양래 교수(화학과)	문상현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아이스하키부동문회	이수건설(주)	조정숙	허든 교수(전기공학과)	김나현 동문(교육대학원 13)
BASFCOMPA	김영란 직원	박계자	아큐멘경영연구소	이수연	조진웅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2)	현대건설(주)	김남선 동문(교육대학원 13)
GH타워	김영훈 교수(화학공학과)	박선하 직원	아크프로덕션(주)	이승택 동문(교육대학원 13)	조현주	현대건설(주)	김대선 동문(교육대학원 08)
GS건설	김오성	박성원	안창범 교수 전기공학과	이신형 동문(로봇학부 14)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주)	현대엘코	김대식 직원



김대호 동문(화학과 93)	김영조 동문(스포츠지도자학과 01)	나용호 동문(로봇학부 11)	박현규 동문(전기공학과 86)	신주엽 동문(로봇학부 17)	이동익 동문(정보제어공학과 03)	이지홍	정승민 동문(수학과 20)
김도현 동문(국제협력학부 14)	김영현 동문(영어산업학과)	나인표 동문(경영학과 86)	박현우 동문(전자통신공학과 09)	신한철 동문(미디어영상학부 14)	이두병 동문(화학과 91)	이진경 직원	정승재 동문(로봇학부 12)
김동균 동문(환경공학과 91)	김용문 직원	나준오	박현자 동문(교육대학원 11)	심경용 직원	이명로	이창문 직원	정승철
김동석 동문(미디어영상학부 01)	김용진	남승우 직원	박현지 동문(행정 02)	심천보 동문(전기공학과 86)	이명진 동문(로봇학부 22)	이창민 동문(화학과 95)	정영욱 교수(전자공학과)
김동선 동문(교육대학원 14)	김옥 동문(화학과 99)	남예찬 동문(정보융합학부 20)	박효중 동문(로봇학부 15)	안길환 동문(화학과 99)	이미선(상담복지정책대학원 07,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창석 동문(화학과 92)	정용재 동문
김동욱(현대홈쇼핑)	김유경	남해울 동문(컴퓨터공학과 14)	박희재 동문(로봇학부 14)	양성현 교수(전자공학과)	이미영 동문(교육대학원 13)	이채윤	정용준 동문(경영학과 83)
김동은 동문(교육대학원 14)	김유정	노용대 직원	반상욱 직원	양윤석 동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8)	이민석 동문(로봇학부 22)	이태엽 동문(로봇학부 15)	정유하 동문
김동인 직원	김윤정	노주형 동문(로봇학부 18)	반윤규	양창근 동문(건축공학과 91)	이민호 동문(로봇학부 16)	이해용 직원	정의욱 동문(로봇학부 12)
김래오 직원	김윤희 동문(대학원 12)	노진우	배경호 동문(화학과 96)	엄두식	이상중	이현명	정인숙 동문(교육대학원 11)
김마리아 동문(교육대학원 14)	김은현 동문(소프트웨어학부 23)	도승연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백주훈 교수(로봇학부)	예익수 직원	이상주 직원	이현선 동문(전자통신공학 80)	정인영 교수(전자통신공학과)
김명종 동문(전자통신공학과 08)	김인기	도연우 동문	백향기 동문(교육대학원 11)	오별님	이상혁 동문(제어계측공학과 92)	이현순	정일훈 동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8)
김민기 동문(화학과 04)	김인숙	라태을 동문(경영학과 06)	변가혜(상담복지정책대학원 09,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오승인 직원	이상훈 동문(추로바이커피 대표)	이혜성 동문(화학과 08)	정종석 동문
김민원 동문(교육대학원 11)	김인화	류규만 동문(전자통신 80)	변숙은 교수(경영학부)	오유경 동문(로봇학부 14)	이상훈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이혜성 동문(화학과 96)	정주원 동문(영어영문학과 02)
김민재	김임순	류일환 동문(로봇학부 10)	사운드캣(주)	오윤식 동문(로봇학부 18)	이선정 동문(화학과 01)	이홍 교수(경영학부)	정진우 직원
김범준	김정권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류혜진 동문	서두욱	오진환 동문(로봇학부 09)	이성은 동문(교육대학원 15, 평강어린이집)	이홍식 동문(전자공학과)	정찬영 동문
김병욱 동문(화학과 93)	김정균	문경 동문(교육대학원 13)	서명화 동문(교육대학원 14)	오현주 동문(화학과 06)	이성재	이화정 동문(교육대학원 11)	정한영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0)
김복기 교수(전자공학과 81, 전자공학과)	김정기 동문(화학과 94)	문명희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0)	서민정 동문	온정훈 동문(화학과 97)	이성호	이홍섭 동문(경영학과 98)	조석효 직원
김봉신 동문(교육대학원 13)	김정숙 동문(교육대학원 12)	민영섭 동문(행정학과 85)	서상규 교수(경영학부)	용철중 동문(법학과 07)	이순화 동문(교육대학원 19)	임서현 동문	조선영(광운학원 이사장)
김상기 동문(응용전자 80)	김정주 동문(교육대학원 12)	박가은 동문(로봇학부 17)	서승원 동문(화학과 88)	우동영	이승연	임시혁 동문(경영학과 06)	조수열 직원
김상훈 교수(경영학부)	김준모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8)	박노왕 동문(경영대 AMP)	서영경 동문(교육대학원 13)	원동규 동문(로봇학부 12)	이승은 직원	임익순 동문(교육대학원 13)	조애량 동문(교육대학원 11)
김석원	김준현	박대회	서영교 동문(교육대학원 14)	원재당약국	이승희	임종대	조영록 직원
김석태 동문(전자공학과 76)	김준호 동문(로봇학부 14)	박민주 동문(로봇학부 17)	서영교 동문(전자공학과 14)	원정아 동문(교육대학원 14)	이연서 동문(로봇학부 17)	임주형	조영주
김선구 동문(전자융합공학과 19)	김지숙 동문(화학과 99)	박명창 동문(화학과 05)	서영호 교수(전자재료공학과)	유미애 학부모(컴퓨터공학부 김승모)	이영민 동문(소프트웨어학부 19)	임종식	조은서 동문
김선화 동문(교육대학원 19)	김지연 동문(전자공학부 97)	박상준 동문(생활체육학과 14)	서정선 동문(교육대학원 14)	유정민 동문(컴퓨터공학과 02)	이영숙 동문(교육대학원 10)	임하순	조인성 동문(교육대학원 14)
김설영 동문(교육대학원 10)	김지찬	박서영 동문	서호석 동문	유정범	이영희	임호선 직원	조인숙 동문(화학과 97)
김성룡 직원	김진 동문(로봇학부 19)	박성국 동문(전자통신 80)	설종현	유정석 동문(로봇학부 19)	이옥희 동문(교육대학원 13)	임화영 명예교수(로봇학부)	조준호 동문
김성호 교수	김진상 동문(행정학과 86)	박소연 동문(교육대학원 14)	성백순 동문(경영학과 06)	유형훈	이웅희	장경순 직원	조충현
김성호 동문(화학과 01)	김진혁	박용식	성옥석	윤명선 동문(교육대학원 14)	이윤석 동문(화학과 92)	장동훈	조형선
김소영 동문(화학과 98)	김진현	박용우	성진호 직원	윤상호 동문(대학원 12)	이윤식 직원	장미화 동문(교육대학원 13)	주문수 동문(화학과 88)
김소윤 직원	김창동	박유림	소민광 직원	윤서빈	이윤정 동문(교육대학원 14)	장세영 동문(교육대학원 19)	주이화
김수안 동문	김총혁 동문(전기공학과 78)	박유진 동문(교육대학원 03)	손기인 동문(화학과 96)	윤선영 동문(화학과 05)	이윤희 동문(교육대학원 14)	장승원 동문(로봇학부 22)	진광희 동문(교육대학원 14)
김수철 동문(통신공학과 77)	김태규 동문(화학과 89)	박정민(대학원 행정학과 21,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손성윤	윤선희 동문(교육대학원 14)	이윤희 동문(교육대학원 14)	장은 동문	진민석
김숙희 동문(교육대학원 13)	김태국 동문(화학과 97)	박정수 직원	손종철	윤우진 동문(화학과 92)	이익희	장익수 동문(교육대학원 04)	진정민 동문(교육대학원 14)
김순일 동문(교육대학원 14)	김현	박정호 동문(화학공학과 12)	손화수 직원	윤윤석 명예교수(경영학부)	이재선 동문(화학과 93)	장창훈 동문	차주현 동문(대학원 14)
김승규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8)	김현서 동문(전자융합공학과 19)	박정호 동문(화학공학과 12)	송경언	윤재우 동문(미디어영상학부 15)	이정서(상담복지정책대학원 21,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전도현 동문(전자통신공학과 16)	최금주 직원
김승수 동문(교육대학원 04)	김현욱	박준수 동문(로봇학부 19)	송예림	윤태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09)	이정숙	전병호 동문(스포츠지도자학과 02)	최동호 동문(전자통신공학과 16)
김승진	김현지	박준호 동문(정보융합학부 22)	송은숙 동문(교육대학원 11)	윤태기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0)	이정운 동문(화학과 00)	전서연 동문	최민희 직원
김승춘 동문(대학원 08)	김형호	박지훈 동문(로봇학부 17)	송의식	윤희기 동문(전자통신공학과 09)	이정운 동문(미디어영상학부 17)	전은선 동문	최병광 직원
김신한 동문(화학과 00)	김혜정 동문(교육대학원 11)	박진희 동문(교육대학원 19)	송재근 동문(유콘시스템 대표)	이강성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이정임(강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경진 동문(대학원)	최복선 동문(교육대학원 10)
김애자 동문(교육대학원 13)	김혜진	박찬만 직원	송형수 교수(수학과)	이건영 교수(전기공학과)	이정준 동문(화학과 00)	정경학 동문(전자계산학과 91)	최상두
김연영 동문(화학과 01)	김홍빈 동문(대학원 12)	박찬엽 동문(화학과 99)	신문철 직원	이경철 동문(컴퓨터공학과 09)	이종열 직원	정기봉 동문(대학원 12)	최성수 동문(화학과 99)
김연화	김효겸 동문(산업경영학과 84)	박채원 동문(로봇학부 17)	신용문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8)	이근수 동문(화학과 05)	이종용 외래교수(전자공학부)	정문호 교수(로봇학부)	최성열 동문(정보제어공학과 03)
김영무 직원	김희교 교수(동북아문화산업학부)	박필예 동문(교육대학원 12)	신유섭 동문(로봇학부 15)	이대규	이종혁	정민구 동문(로봇학부 11)	최성우 동문(로봇학부 19)
김영부 동문(응용전자공학과 71)	김희정 동문(경영학과 05)	박하나 직원	신재현	이대의	이주형 동문(화학과 01)	정수미 동문(교육대학원 14)	최승미
김영용 동문(정보제어공학과 05)	나극한 명예교수(전자공학과)	박해진 동문(화학과 96)	신정희 동문(교육대학원 13)	이동석	이지향 동문(교육대학원 15)	정수호 동문	최승오 동문(교육대학원 14)



발전기금 약정명단

최인찬 동문(전자계산기공학과 82)	최찬영 동문(컴퓨터공학부 99)	함석진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0)	황대영
최재완 직원	최창호 직원	함순정 동문	황문희 동문(교육대학원 11)
최재준 직원	최혜숙 동문(교육대학원 11)	함형욱(전자공학부 96)	황은솔 동문(로봇학부 13)
최재청 직원	최홍선 직원	허용 동문(미디어영상학부 07)	황종석 동문(전산 83)
최정순 동문(교육대학원 13)	탁연복 학부모(경영학부 이승원)	허정 동문(신문방송학과 96)	
최정훈 직원	탁형욱 동문(전자통신공학과 91)	허진희	2009년 8월 1일 ~ 2025년 8월 20일
최종대 동문(화학과 89)	파란나라어린이집	홍만의(대학원 행정학과 20,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최종수 동문(미디어영상학부 08)	평생다문화전공	홍명현 직원	
최주엽 교수(전기공학과)	한솔시스템	홍정숙	
최준혁 동문(교육대학원 15)	한예진	홍채은	
최중은 동문(로봇학부 12)	한철경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0)	홍현표 동문(화학과 95)	
최진철 동문(신문방송학과 95)	한해리 동문(화학과 05)	황규빈 동문(로봇학부 18)	
최진후 동문(법학부 09)	한호숙 동문(교육대학원 14)		

발전기금 참여안내

- **간편한 기부 약정** PC·모바일에서 <http://give.kw.ac.kr>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기부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납부 방법** 휴대폰 결제, 자동이체 (CMS), 카드 결제, 급여공제 (교직원), 무통장입금 등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제 혜택**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
 - 상속재단 기부 : 고인의 유언증서,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 상속세제 면제

법인(주식회사, 법인 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발전기금 종류

광운사랑 발전기금	광운의 발전을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금
광운만민 기금	월 1만원씩 광운과 함께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금
광운사랑 발전기금	광운의 발전을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금
광운 르네상스	기부금의 용도 및 대상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학과, 대학원, 건축, 장학, 연구 등)
네이밍기금	광운의 시설 및 인프라 후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금(강의실, 실험실습실, 80주년 기념관,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등)
현물 기부 및 기타 후원	유형고정자산, 유가증권, 각종 법적 권리 등

• 후원문의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 홍보팀 화도관 302호
홍보팀 Tel : 02 - 940 - 5504~5 Fax : 02 - 940 - 5506 e-mail : kwlove@kw.ac.kr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BEYOND THE CENTURY
KWANGWOON

The JoongAng 중잉일보

2024년 대학평가 교수 연구 부문 **8위**

첨단연구의 탐티어 광운대학교의 무한연구엔진



광운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http://www.kw.ac.kr>



광운대학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wangwoonuniversity>



광운대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http://news.kw.ac.kr>



광운대학교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w1934>



광운대학교 광운영상방송센터
<https://www.youtube.com/user/KWBConair>



시각이 다르다

시선이 다르다

광운은 다르다

우리 눈 앞에 펼쳐진 같은 대상이라도
앞면에서, 옆면에서, 뒷면에서 볼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모두가 앞면을 바라볼 때 옆면을 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 옆면을 보게 되면 뒷면을 보면서 또 다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광운대학교는 광운만의 남다른 시각과 특별한 시선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를 이끌어갑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